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월러 연준 이사 "12월 0.5%p 금리 인상 고려해야"
- WSJ: 미 10월 수입 물가 1.1% 상승… 석 달째 오름세

[미국 금융]
- WSJ: 엔비디아, 빠른 성장세 재확인… "젠슨 황 CEO 복귀 없다"

[미 중 러시아 관계]
- Bloomberg: 시진핑·푸틴, 트럼프와의 3자회담 앞두고 무역장벽 비난

[중동 전쟁]
- WSJ: 이란, 쿠웨이트·바레인 공격… 호르무즈 분쟁 격화
- CNBC: 중동이 트럼프·시진핑·푸틴 3자 정상회담 주시하는 이유

[오일]
- WSJ: 국제유가, 공급 과잉 전망에 하락… 중동 긴장 고조에도 약세

[주택]
- Bloomberg: 미 주택 모기지 5주 만에 반등… 7.35% 기록
- Bloomberg: 미 10월 주택착공은 9.9% 증가… 다세대 주택 착공 늘어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타겟 3분기 매출 예상치 상회… 연간 실적 전망치 상향

[KMI 공급망 브리핑]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Waller Says Fed Should Consider Half-Point Rate Hike
월러 연준 이사 "12월 0.5%p 금리 인상 고려해야"

- Christopher Waller 연준 이사가 오늘 수요일 “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다”며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최근 3개월간 물가 상승률이 연율 3.5%에 육박해 목표치(2%)를 크게 웃돈다며,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는 강력은 금리 대응 조치는 불필요하다며 대폭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John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와 배치되는 입장이다.

기사

WSJ: U.S. Import Prices Climb Again in October
Overall import prices rose 1.1% last month, the same increase seen in September
미 10월 수입 물가 1.1% 상승… 석 달째 오름세

- 연방 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국의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1.1% 상승하며 9월과 같은 오름폭을 보였다.
- 이는 석 달 연속 상승세이자, 전문가 전망치(0.7%)를 웃도는 수치다.
- 항목별로는 수입 연료 가격이 한 달 새 3.6% 급등하며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연료를 제외한 수입물가 역시 0.8% 올랐다.

기사

[미국 금융]

WSJ: Nvidia Reports Faster Growth, Says Jensen Huang Won’t Return as CEO
엔비디아, 빠른 성장세 재확인… "젠슨 황 CEO 복귀 없다"

- 엔비디아가 월가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오랜 기간 회사를 이끌어온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 어제 화요일 발표된 실적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은 1,158억 달러, 순이익은 653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임시 CEO 자격으로 첫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나선 Colette Kress 임시 대표는 창업자인 젠슨 황의 부재 속 회사의 미래 전략을 묻는 질문에 답했다.
- 그는 젠슨 황 전 CEO의 복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기사

[미 중 러시아 관계]

Bloomberg: Xi, Putin Assail Trade Barriers Ahead of Summit With Trump
시진핑·푸틴, 트럼프와의 3자회담 앞두고 무역장벽 비난

-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장벽을 일제히 비판했다.
- 오늘 수요일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경제 장벽에 경고하며 아·태 지역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기존 강대국들이 부상하는 경쟁국을 억누르려 한다고 비난하며, 제재와 관세, 수출 통제로는 이들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두 정상은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촉구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 부르며 이번이 2013년 이후 50번째 만남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중동 전쟁]

WSJ: Iran Attacks Kuwait and Bahrain, Further Escalating Fight Over Strait
이란, 쿠웨이트·바레인 공격… 호르무즈 분쟁 격화

- 이란이 오늘 수요일 새벽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전격 공습하며 호르무즈 해협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이 해협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불을 지른 직후이자, 미국의 은밀한 대이란 군사 타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행됐다.
- 이란은 미군이 주둔 중인 쿠웨이트 공군기지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으며, 쿠웨이트군도 다수의 드론이 날아들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공습은 최근 몇 주간 미군이 이란의 드론·미사일 발사 기지인 케슘섬(Qeshm Island)을 타격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기사

CNBC: Why the Middle East is watching the Trump-Xi-Putin summit
중동이 트럼프·시진핑·푸틴 3자 정상회담 주시하는 이유

- 오늘 수요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트럼프·시진핑·푸틴 3자 정상회담에 중동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전쟁 종식'과 'AI 패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 우선 미국이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과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를 설득해 이란에 종전 압박을 가할지가 관건이다. 에너지 수급에 타격을 입은 중국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조기 종식을 촉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미국산 첨단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건 걸프 국가들의 AI 구상 역시 주요 변수다.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Fall Amid Supply Surplus Expectations, Middle East Tensions
국제유가, 공급 과잉 전망에 하락… 중동 긴장 고조에도 약세

-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글로벌 원유 공급 과잉 전망이 부각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 이날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 대비 0.4% 내린 배럴당 92.75달러를 기록했으며,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역시 0.8% 하락한 배럴당 83.94달러에 거래됐다.

-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이 오만 카사브(Khasab) 인근에서 두 번째 피격을 당해 선내 화재가 발생하는 등 중동 내 안보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

기사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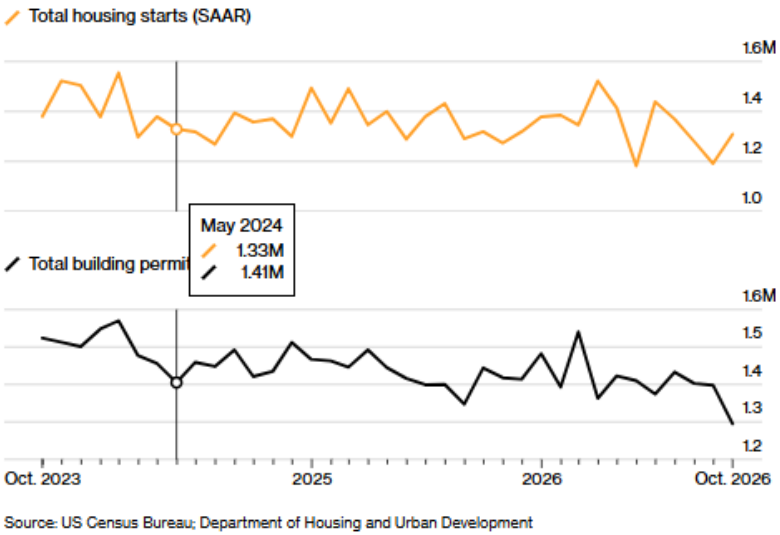
Bloomberg: US Mortgage Rates Increase for First Time in Five Weeks
미 주택 모기지 5주 만에 반등… 7.35% 기록

- 미국 모기지 금리가 5주 만에 상승 전환하며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 매수 심리를 다시 위축시켰다.
- 오늘 수요일 미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전주 대비 0.14%포인트 오른 7.35%로, 1년 전보다 1% 포인트 가까이 높다.
- 금리 반등 여파로 주택 구매용 모기지 신청 지수는 2.5% 하락해 8월 말 이후 아홉 번째 주간 감소세를 보였고, 재융자 지수도 1.5%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 그리고 이달 주택건설업자 심리지수는 14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기사

Bloomberg: US Housing Starts Climb on Multifamily Construction Rebound
미 10월 주택착공은 9.9% 증가… 다세대 주택 착공 늘어

- 고금리로 단독주택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착공이 크게 반등하면서 미국의 10월 주택착공 건수가 증가세를 기록했다.
- 어제 화요일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주택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9.9% 늘어난 연율 131만 채로 3개월 만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125만 채)를 상회하는 수치다.
- 유형별로는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신규 착공이 24% 급증했고 단독주택 착공은 4% 증가한 연율 86만 4천채로 집계됐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Target Sales Beat Estimates as Turnaround Efforts Gain Steam
타겟 3분기 매출 예상치 상회… 연간 실적 전망치 상향

- 미국 대형 유통업체 타겟이 3년간의 매출 감소를 딛고 시장 기대를 웃도는 분기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 상향을 발표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회계연도 3분기(10월 31일 마감)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고, 주당순이익(EPS)도 관세 환급 효과 등에 힘입어 전망치를 상회했다.
- 신임 최고경영자 체제 아래 상품 경쟁력 강화와 식음료 매장 개편, 연말 할인 확대를 추진한 결과다.

기사

[KMI 공급망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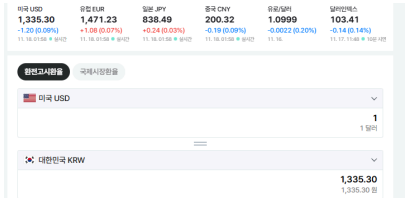
호르무즈 해협 위기 고조 및 글로벌 에너지·안보 동향

-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피격 및 기뢰 충돌 사고가 하루 새 4건 이상 발생하며 중동 해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인도인 선원 24명이 탑승한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이 피격돼 오만 당국이 구조에 나섰으며, 오만 북부 카삽 인근에서도 추가 유조선 공격으로 선원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협 동쪽에서 유조선 4척이 기뢰 접촉으로 폭발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이란과 오만은 해협 안보 해법을 논의 중이다.
- 군사적 긴장도 전면 확대되고 있다. 이란이 바레인 주둔 미 해군 5함대를 세 번째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 USS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중동에 전격 배치했다. 예멘 후티 반군 역시 일일 400만 배럴을 수송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파이프라인을 향해 드론을 발사하고 아덴 방면 진격을 이어가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375	28/32	5.423	-0.038
10-Year Note	5	4/32	5.074	-0.046
7-Year Note	4.875	2/32	4.965	-0.039
5-Year Note	4.75	2/32	4.886	-0.036
3-Year Note	4.625	1/32	4.833	-0.027
2-Year Note	4.625	1/32	4.791	-0.024
1-Year Bill	0	0/32	4.582	-0.011
6-Month Bill	0	0/32	4.462	0.005
3-Month Bill	0	0/32	4.263	0.016
1-Month Bill	0	0/32	3.976	-0.005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